관광객 유치·지역 이미지 제고에 꽃보다 좋은 게 없다

꽃심는 지자체들

전남지역 각 시·군들이 거리와 주요 관광지에 집중적으로 꽃 단장에 나서고 있다. 농가 등에서 꽃을 기증받아 지역주민들의 공공근로사업 등을 통해 식재하면서 예산 절약, 주민 소득 향상, 외지인에 대한 지역 인식 제고 등의 순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장성군, 황룡강 관광명소화 장성댐 인근 유채꽃 파종
강진군, 거리 곳곳에 원추리·백일홍 등 1만여본 식재
꽃 기증 받아 공공근로 사업으로 추진 예산절감 효과

전남지역 각 시·군들이 거리와 주요 관광지에 집중적으로 꽃 단장에 나서고 있다. 농가 등에서 꽃을 기증받아 지역주민들의 공공근로사업 등을 통해 식재하면서 예산 절약, 주민 소득 향상, 외지인에 대한 지역 인식 제고 등의 순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6일 장성군에 따르면 천혜의 자연 공간인 황룡강을 아름다운 관광명소로 조성하기 위해 장성댐 하류 약 2km, 4만7420㎡ 부지에 내년 5월 개화를 목표로 유채꽃을 파종했다.

군은 지난 10월 말부터 유채 종자 파종을 추진, 개화시기까지 이식과 풀매기, 보식, 물주기, 꽃대 제거 등 단지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군은 유채꽃 이외에도 메리골드, 코스모스 등 계절별로 특색있는 꽃을 식재해 사계절 꽃이 피는 친환경 생태학습장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강진군 역시 '사계절 꽃피는 밝고 활기찬 도시'를 목표로 오는 31일까지 원추리, 칸나, 부용화, 백일홍 등 4종 1만여 본을 추가로 식재한다.

군은 내년 강진을 찾을 관광객들을 위해 강진읍에 홍가시 등을 식재하고, 동교 후문 ~ 청자촌 가는 길에는 백일홍, 목수국, 루드베키아, 금계국, 원추리 등 다양한 꽃을 식재 또는 파종 중에 있다.

도암 계라 ~ 신전 수양 주작산 자연휴양림 가는 길은 봄꽃인 팬지, 패츄니아, 개나리 등을 식재해 내년 등산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탐진강 하류인 군동면 석교천 둔치에는 유채를 파종했다.

강진군은 이 같은 대규모 꽃길 조성을 통해 거리 이미지를 개선하는 것은 물론 저소득층의 일자리 창출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영기 해양산림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관광객과 지역주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게 됐다"며 "산림 휴양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여서 산림건강 숲 조성지와 탐진강 등에 기관·사회단체 등도 나무심기 운동 동참을 유도해 아름다운 꽃길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군은 수국, 철쭉 등을 농가에서 기증받아 5만여 본을 공공사업장에 식재해 1억2000여만원의 예산을 절감하기도 했다.

/강진=남철희기자 choul@
/장성=김용호기자 yongho@

강진군 공공근로사업에 참가한 주민들이 지난 5일 오전 동교 후문 ~ 청자촌 구간 중 대구 저두 중저 ~하저 도로변 갓길에 수국을 식재하고 있다.

영암경찰-디에스중공업 '착한운전' 협약 영암경찰서(서장 김영달)과 디에스중공업(주)(대표이사 김성길)가 지난 5일 착한운전 마일리지제 활성화와 4대 사회악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자리에서 디에스중공업 측은 평소 후원금을 지원하는 불우이웃 2명에 대한 순찰강화를 당부하기도 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담양 중앙로 한방향 주·정차 단속 "잘했네"

터미널 주변 상습 교통체증 상당부분 해소
외지인·주민들 불편 덜고 상가도 활기띨듯

담양군이 지난 1일부터 실시하고 있는 중앙로 한 방향 주·정차 정책이 인근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실시 5일 만에 담양의 관문인 터미널 주변의 상습 교통 정체가 상당부분 해소됐기 때문이다.

군이 담양읍, 담양 경찰서의 협조를 얻어 이달부터 한방향 주·정차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이곳은 담양터미널에서 담양성당까지 약 300m 구간으로, 만성 교통정체로 인해 인근 주민은 물론 외지인들의 불편과 민원이 계속됐던 곳이다.

수많은 지도 단속에도 불구하고 병원과 상가가 밀집해 교통량이 많고 생계형 노점상까지 자리를 차지했기 때문이다. 또 주변 상가 역시 주차 단속에 비협조적으로 나오면서 효과를 보지 못했다.

군은 그동안 중앙로 상가 주변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지난해 담양읍교회(50대), 하나병원 앞(30대) 등 2곳, 올해 담주지구(15대) 등에 주차장을 신설하고, 천변지구(50대)에 공영주차장까지 조성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담양은 해마다 관광객이 늘어 120만명 관광 시대를 맞고, 2015년 세계대나무 축제까지 열리는 담양군의 입장에서 담양의 관문인 터미널 주변의 교통정체난은 꼭 풀어야 만 하는 숙제였다"며 "천변지구 공영주차장까지 완료되면 주차난은 어느 정도 해소될 것이고, 그 시점에 맞춰 중앙로 전체에 대해 한 방향 주정차 단속에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

군은 한 방향 주·정차 제도가 정착되면 주차 때문에 기피했던 주민들이 중앙로 상가를 더 찾아 장기적으로 상인들에게 이익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담양=정재근기자 jjg@

"혁신도시 열병합발전소 광주 RDF공급 사실무근"

나주시 재차 강조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에 설치될 열병합발전소에 광주에서 생산된 가연성폐기물연료(RDF)가 공급될 것이라는 논란과 관련 나주시가 6일 사실무근임을 거듭 강조했다.

나주시 관계자는 "최근 일부 언론 보도를 통해 광주에서 생산된 RDF가 공동혁신도시 열병합발전소에 공급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며 "이미 몇차례 밝힌 바 있지만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광주시는 이와 관련 "광주에서 생산된 RDF의 수요처 문제는 각 시공사가 결정하도록 방침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나주=손영철기자 ycson@

정부합동 민원행정서비스 만족도 평가

전남도 2년 연속 1위 차지

전남도는 안전행정부가 전국 시도를 대상으로 실시한 정부합동평가 민원행정서비스 만족도 분야에서 2년 연속 전국 1위를 차지했다고 6일 밝혔다.

민원행정 서비스 만족도 평가는 단순·복합민원을 신청한 방문 민원인을 대상으로 서비스 환경 분야(민원실 이용 편리성 및 민원환경 쾌적성), 서비스 과정 분야(담당 공무원 친절성, 불필요한 서류 및 방문 폐지, 정보제공 및 안내 충분성), 서비스 결과 분야(민원처리 신속성·공정성 및 업무에 대한 전문성) 등 3개 분야로 나눠 이뤄진다. 전남도는 평가 결과 민원인 만족도가 89.2%로 높게 나왔다.

전남도가 2년 연속 전국 1위를 차지한 것은 도와 22개 시군이 민원실 환경 개선과 함께 민원인 중심의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 결과라는 분석이다.

최영열 전남도 종합민원실장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전국 1위를 차지한 것은 전 공직자의 노력과 함께 도민 모두가 한 마음으로 성원해 준 덕분"이라고 밝혔다.

/장필수기자 bungy@

완도항 '왜몰초등대' 복구 조만간 운영

목포지방해양항만청(청장 남광률)은 6일 "지난해 태풍 볼라벤에 의해 도괴된 완도항 입구의 왜몰초등대를 복구하고 조만간 운영한다"고 밝혔다. 왜몰초등대는 기존의 콘크리트 구조물보다 더욱 견고한 강관파일식 구조물(암굴착 7.0m)로 국비 9억원을 투입해 복구했다. 〈사진〉

또 등대에 최첨단 항로표지용 AIS를 설치, 항해자들이 불빛과 통신으로 등대의 위치를 알 수 있어 보다 안전한 항해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왜몰초등대 주변해역은 여객선 및 화물선의 주요 통항 지점이다.

김동태 진도해양교통시설사무소장은 "왜몰초등대가 복구되어 선박이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어 해상교통 안전 확보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목포=김준석기자 kjs0533@